



소개

에트모스 인피니트 '헤일로'

화이트 래커 다이얼을 통해
깔끔한 디자인을 더욱 강조한 새로운 모델

주요 특징:

- **독창적인 위치메이킹:** 1928 년에 발명된 혁신적인 '영구 운동' 시계 콘셉트, 1°C 만 변해도 48 시간의 파워 리저브 제공
- **새로운 화이트 래커 다이얼:** 래커를 바른 뒤 꼼꼼하게 한 겹씩 건조한 10 겹의 래커 코팅
- **리미티드 에디션:** 100 피스

탁월한 영구 운동의 발명은 수 세기 동안 물리학자들의 꿈이었습니다. 1928 년, 위치메이킹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거듭난 에트모스가 출시되면서 이러한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선을 사로잡는 시계를 넘어서 독특한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정의되는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2022 년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특별한 모델인 에트모스 인피니트를 출시했고, 2025 년에는 이 디자인을 새롭게 재해석한 화이트 래커 다이얼의 10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공기만으로 살아 숨 쉬는 특별한 타임피스

1928 년, 장-레옹 휘테(Jean-Léon Reutter)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형태의 에트모스를 발명했습니다. 에트모스는 주변 온도의 경미한 변화만으로도 에너지를 얻어 별도의 조정 없이 독자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비밀은 멤브레인을 통해 시계를 구동하는 스프링에 연결된, 가스를 채운 밀폐형 캡슐에 있습니다. 주변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가스가 팽창하면서 아코디언의 바람통처럼 멤브레인이 '숨을 쉬는 듯' 스프링이 와인딩됩니다. 1°C 의 변화만으로도 이를 동안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작동합니다.



투명한 미니멀 구조를 강조한 애틀모스 인피니트 ‘헤일로’는 애틀모스 본연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더없이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21 세기 클래식 아르데코 ‘글래스 박스’ 애틀모스 디자인을 재해석한 애틀모스 인피니트 ‘헤일로’의 실린더형 글래스 캐비닛은 초창기 모델의 둥근 돔형 ‘유리 뿔개(bell jar)’를 떠올리게 합니다. 글래스 캐비닛이 한눈에 고스란히 들어오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형태의 애틀모스 메커니즘과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글래스로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애틀모스를 작동시키는 벨로우, 체인, 기어 등을 포함한 전체 메커니즘을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화이트 래커 다이얼로 더욱 돋보이는 미니멀한 디자인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된 화이트 래커 다이얼은 시각적 깊이감을 더해주며, 메커니즘의 실버 로둠 마감과 어울리는 폴리싱 처리한 바통형 인덱스와 핸즈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세련된 심플함을 추구하는 이 작품은 불필요한 디테일을 제거함으로써 오브제의 진정한 우아함을 드러냅니다. 다이얼 링 제작은 높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화이트 컬러의 순도를 높이려면 래커를 바른 뒤 꼼꼼하게 한 겹씩 건조하며 10 번의 래커 코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래커를 폴리싱 처리하고, 인덱스를 장식할 작은 홈을 만드는 동안 래커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광택제를 바릅니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인 작업을 통해 완벽한 마무리를 거쳐 투명도와 균형에 따라 최종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보호용 광택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인덱스를 슬롯에 부착합니다.

메탈 외부 링에는 작은 톱니 모양의 도트로 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태는 무브먼트 바디 아래에서 특정한 리듬에 따라 천천히 진동하는 고리 모양 밸런스의 원형 인덴테이션(indentation)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듯 섬세한 디테일이 깔끔한 디자인을 더욱 강화해 주며, 모든 요소에는 역할이 있어 과하거나 어색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접근 방식은 애틀모스 기능에도 반영됩니다.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70 은 추가적인 컴플리케이션 대신 오직 시계에 필요한 기능만을 장착한, 시간-분을 표기하는 무브먼트입니다. 본질적인 요소에만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세련미는 심플함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구현합니다. 애틀모스 칼리버의 특징인 오픈워크 구조 역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정제되었으며, 브러싱된 표면과 폴리싱 처리한 테두리, 꼬뜨 드 제네브 스트라이프와 같은 파인 워치메이킹 마감이 조화를 이루어 흥미로운 빛의 유희를



선사합니다. 깔끔한 라인과 섬세한 비율을 갖춘 애트모스 인피니트 ‘헤일로’는 장인 정신과 소재의 품질이 돋보이며 “Less is more”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애트모스 인피니트 ‘헤일로’의 새로운 재해석은 미학적 진화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과 위치메이킹 전통에 뿌리를 둔 탁월한 기술력과 혁신에 대한 예거 르쿨트르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내 아틀리에에서 디자인, 생산 및 조립된 새로운 애트모스 인피니트 ‘헤일로’ 리미티드 에디션은 2025 년 4 월 8 일, 세계 최고의 디자인 이벤트인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상세 정보

애트모스 인피니트 ‘헤일로’

캐비닛 소재: 글래스

크기: 직경 215mm x 높이 253mm

무브먼트: 퍼페추얼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70: 고리 모양 밸런스, 60 초 진동

기능: 시, 분

다이얼: 화이트 래커

제품 번호: Q540532J

10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에트모스 인피니트 '헤일로'



1928 년에 탄생한 애틀모스는 다른 시계와는 차원이 다른 시계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의 광범위한 노하우로 탄생한 발명품인 애틀모스는 기존의 에너지원이나 와인딩 없이도 수 세기 동안 작동하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틀모스의 메커니즘은 일상적인 기온 변동으로 구동됩니다. 섭씨 1 도의 변화만으로도 이를 동안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1930 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독창적인 재능을 활용해 왔으며, 마침내 애틀모스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애틀모스 II 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글래스 큐브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클래식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는 유명 디자이너 및 장인과 협력하여 애틀모스 스페셜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